

찾아오는 청년 젊어지는 농촌

기반 없는 청년농부들의 빛이 되어주다,
청송해뜨는농장

-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안현로 1011
- **단체명** 청송해뜨는농장
- **주요내용** 농사지을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까지 '귀농멘토'로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적 농업 시범농장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청년농부

농촌에서의 삶, 농사만 지어서 될까요?

농사지을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농촌에서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경상북도 청송에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전부터 청년들과 함께해온 '청송해뜨는농장'이 바로 그곳이다. 청송해뜨는농장의 조옥래, 윤수경 대표와 청년들의 만남이 시작된 것은 두 사람의 모교인 경북대학교 학생을 만나면서부터다.

2001년 사과 농사를 짓고 싶어 무작정 귀농한 부부는 청송에 정착해 온라인 직거래를 시작했고, 여느 농가가 그렇듯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경북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한 부부는 대학 후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대학생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차 농장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경북대학교 현장실습농장으로 선정되어 현장 교수 역할을 하면서 청년들과 인연을 맺게 되

었다. 그렇게 처음 농장 일을 시작했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인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장벽이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실제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이 나타났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청년들은 농촌에 와서 살고는 싶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는 것을 알게 된 조옥래, 윤수경 부부는 본격적으로 청년의 '귀농 멘토'가 되고자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두 사람이 아무런 기반 없이 귀농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앞으로 미래 농촌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세대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옥래, 윤수경 대표 또한 귀농하기 이전에는 도시에서만 살았던 청년이었고 아무런 기반도, 연고도 없이 농사를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선택한 귀농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금 청년세대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해뜨는농장의 조옥래, 윤수경 부부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방법을 찾고, 이를 청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된다. 택배를 부치는 일, 밭을 관리하는 일, 집을 고치고, 전기를 고치고, 지붕을 칠하는 일 등 농사를 짓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이 모든 것을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단기적인 일정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조옥래, 윤수경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청년들과 모든 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농촌에서의 삶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두 사람이 가진 신념은 몇 명이





청송 해뜨는농장 조옥래, 윤수경 대표와 청년들

우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갔느냐,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뜨는 농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뜨는농장 2018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날 짜	구 분	프로그램 및 활동
05.12.	네트워크	경북대학교 사계절농업동아리 M.T(팜파티)
05.23.	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협의체 모임
06.09.	네트워크	청송 어수리마켓 참가(06.09./06.30.)
06.14.	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협의체 모임
07.13.~07.15.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
07.20.	슬기로운 농장생활	플리마켓 디자인 상품 제작
07.21.	네트워크	청송 어수리마켓 참가
07.24.	슬기로운 농장생활	숙소 상하수도 배관연결하기
07.30.	슬기로운 농장생활	숙소 데크공사하기
08.01.~10.31.	레지던시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1기
08.01.	슬기로운 농장생활	상하수도 배관, 데크 시공하기
08.02.	슬기로운 농장생활	청송군 체험한마당 준비물 제작
08.03.	슬기로운 농장생활	양봉농장 체험
08.04.	네트워크	청송군 체험한마당 참여
08.07.	네트워크	청송군 관광연구회 네트워크 회의
08.09.	네트워크	경북도청 네트워크 회의
08.09.	슬기로운 농장생활	농촌 융복합 사례와 제빵 실습
08.10.~08.12	슬기로운 농장생활	청춘상상랩 레지던시 기획회의
08.10.	슬기로운 농장생활	사과즙 생산과정 견학 및 실습
08.12.	슬기로운 농장생활	사과쥬스 생산가공 실습
08.21	네트워크	청송관광연구회 회원역량강화 체험활동
08.23.	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협의체 모임
08.29.	네트워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가
08.30.	네트워크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정보화경진대회 참관
09.01.	슬기로운 농장생활	사과선별 작업

날 짜	구 분	프로그램 및 활동
09.04.	네트워크	청포도(청년여성을 포용하는 경상북도) 일자리 포럼 참가
09.06.	네트워크	2018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전시부스 운영
09.07.	슬기로운 농장생활	사과 선별, 포장 작업
09.09.	슬기로운 농장생활	사과 묘목 눈접 붙이기
09.10.	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협의체 모임
09.15.~09.16.	슬기로운 농장생활	사과 선별 작업
09.17.~12.04.	교육 및 학습모임	2018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09.28.	슬기로운 농장생활	용접기술 배우기
10.01~12.30.	레지던시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2기
10.11.	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협의체 모임
10.11.	교육 및 학습모임	청년선배창업가 멘토링
10.19.~10.20.	네트워크	2018 경북청년농산업창업박람회 '청년, 창업의 씨앗을 틔우다' 참가
10.29~11.25.	교육 및 학습모임	크라우드 펀딩 청년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빨간사과 프로젝트
10.29.~11.14.	탐방	일본 사회적농업 탐방
11.13.	교육 및 학습모임	상품사진촬영 교육
11.15.	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협의체 모임
11.23.	슬기로운 농장생활	인테리어기술 익히기
11.28.~12.01.	푸드박람회 참가	2018 코엑스 푸드위크 참가
12.02.	탐방	서울혁신로드탐방
12.13.	교육 및 학습모임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새로운 바람
12.17.	교육 및 학습모임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전략 세미나
12.27.~12.30.	워크샵	2018 사회적농업 실천워크샵
12.27.	활동평가	2018 사회적농업 시범농장 사업보고회
12.27.	탐방	마을만들기 우수선진시 고한18번가 탐방
12.30.	탐방	도시재생 선진지 삼탄아트마인 탐방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슬기로운 농장생활'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작물의 성장부터 이를 재배, 수확해 판매·유통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플리마켓 디자인 상품 제작', '숙소 상하수도 배관연결 및 전기공사', '숙소 입구 데크 공사하기', '상하수도 배관 및 데크 시공', '청송군 체험한마당 참가 준비물 제장', '양봉농장 실습', '농촌 융복합 사례와 제빵 실습', '청춘상상랩 레지던시 기획회의', '사과즙 가공공장 견학 및 생산 실습', '사과전별 및 포장 실습', '사과 묘목 눈접 붙이기', '사과 선별 작업', '용접기술 배우기', '인테리어 기술 배우기' 등이 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시골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 예술가들이 청송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결과물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전시했다. 2018년 두 달 기간을 두고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사진 분야의 예술가와 홍보에 관심이 있는 청년 두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도시농업이나 청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킨 우수사례를 찾아 방문하고, 사회적 농업 선진지 견학, 로컬푸드 매장과 농부장터 및 직거래장터 등을 찾아가는 '탐방프로그램'도 있다. 청년들은 이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트랜드와 지식, 정보를 얻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청년들과 공유하고, 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습모임을 진행하면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얻는다. 이러한 네트워킹 과정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강의와 워크샵 또한 병행된다.

또 조옥래, 윤수경 대표는 청년들에게 농사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을 상대로 판매해야 하니 도시 소비자들과 잘 소통해야 한다며 다른 문화나 여가활동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의 마케팅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게 했으며,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아무런 지원 사업도 없이 모두 자비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됐고, 한국형 사회적 농업 시범농장으로 선정되어 현재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청송군청의 지원을 받아 청년들이 지낼 수 있는 컨테이너 두 동과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밭도 마



해뜨는농장 청년들의 프로그램 활동사진

련해 청년들이 스스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현재는 농대를 나와 산업기능요원으로 있는 청년 한 명과 경북의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의 대상으로 참여 중인 청년 둘 그리고 최근에 서울과 경북의 상생 프로젝트로 시행된 '청정 경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 두 명, 총 다섯 명이 청송해뜨는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는 농사일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고, 농촌에서의 삶이 궁금해 경험을 쌓고자 온 청년도 있다.

청년, 농촌 지역사회에 스며들다

이렇게 청년들이 해뜨는농장에 오가면서 청송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두 부부가 귀농한 이후에는 청송에 청년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청송해뜨는농장에서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 세 명이 주소를 옮겨 청송군에 청년이 세 명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에 맞닿아 있는 농촌 지역에 이런 변화는 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청년들이 드나들면서 지역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든지, 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목욕탕, 슈퍼마켓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 지역이나 마을 행사 때는 두 부부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들 일손을 돕기도 하고, 농산물을 파는 플리마켓에 탑차를 끌고 가 빙수를 팔기도 한다. 지역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왔다며 좋아하고, 그렇게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마을에 활력이 돈는다. 사실 여기에는 청송해뜨는농장의 두 부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들이 힘겹게 쌓아온 인맥이나 커뮤니티, 네트워킹을 청년들에게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한다. 옛날 같으면, 지역 주민의 텃세로 인해서 외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조옥래, 윤수경 대표가 이미 오래전에 겪고, 극복했던 것들을 청년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중풍으로 쓰러진 마을 주민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과수원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9년, 온라인 거래로 인연을 맺은 주한미군 가족이 청송해뜨는농장을 찾았고, 이후에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팜파티'를 개최했다. 팜파티를 진행해오면서 주변 농가들과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연계를 통해 유대감을 쌓았고, 이러한 연대가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이 청송해뜨는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본 주변 농가들이 청년들에게 농촌에 와서 사과 농사만 지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도 와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청년들은 벌 농장에도 가보고, 팝콘 옥수수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커피 농장에서 일도 배워보면서 주변 농가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뿐만 아니다. 청년들은 경험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해뜨는농장에서 만난 청년 다섯이 뜻을 한데 모아 '청춘상상랩'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8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구점이 없는 농촌에 가구공방을 만들어 주민들이 필요한 가구를 팔거나 수리해주고, 온라인 직거래 판매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농산물 사진을 전문장비로 찍어 농민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창업아이템이었다. 비록 농업기반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마을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농촌에서 꼭 필요한 가치들을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깊었다. 청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업네트워크 공간 설치 운영을 지원해주는 경상북도 '청년괴짜방' 지원사업에 공모했고, 선정되었다. 해뜨는농장 출신의 청년 다섯이 모인 '청춘상상랩'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실제로 마을 내 창고를 임대해 1층은 공유 목공방, 2층은 공유 스튜디오로 꾸며진 공유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했다. 그들의 생각과 꿈을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실현시킨 것이다.

해뜨는농장의 가치, 청년이 미래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농촌에서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성향이 다르고, 꿈도, 목표도, 생각도 다른 청년 다섯과 함께 하다보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인생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각각의 눈높이에 맞추려 마음을 다잡는다. 다시 설명하고 교육하고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라다. 더욱이 농사일을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의 시간이 더 들어가다 보니 매출도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뜨는농장이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에서 청년은 취약계층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귀농초기 자신들이 그러했고, 그 모습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투영되면서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귀농학교, 창농학교는 많지만, 6개월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청송해뜨는농장은 청년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오롯이 자신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것이 다른 귀농학교, 창농학교와 다른 차별성이며, 청송해뜨는농장이 가진 가치이다.

청송해뜨는농장의 목표는 자신들과 같은 농가들이 지역에 하나씩은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에 청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청년의 미래에 농촌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이 돈이 있다 한들 농촌의 실정을 모를뿐더러 연고가 없어 좋은 땅을 사기는 커녕, 결국에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고 만다.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농촌이 가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정착을 논할 수 없기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옥래, 윤수경 대표는 청년들이 자립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그 성과가 바로 청송해뜨는농장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송해뜨는농장은 한국형 사회적 농업 시범농장으로서 농촌에서 청년들의 해가 뜨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보살피고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